

유로존 소비자물가: 8 월 3.3%로 재가속, 에너지가 주도하고 근원물가는 잠잠

2026.09.0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8 월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3%로 뛰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번 상승은 기저효과 착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밀어 올린 결과다.

무슨 상황인가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HICP)는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보는 핵심 지표다. 3 월 2.6%에서 완만히 오르던 물가는 7 월 2.9%를 거쳐 8 월 3.3%로 올라서며 유럽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뚜렷하게 웃도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이번 달 실제로 새로운 상승 압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1 년 전인 2025 년 8 월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거의 0%였으므로, 이번 가속을 단순히 '작년 수치가 낮아서 생긴 착시'로 볼 수는 없다.

표면 숫자와 실제 동인은 다르다

이번 달 물가 상승폭 0.4%포인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부분을 에너지 가격이 혼자 만들었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10.3%에서 14.3%로, 전월 대비로도 2.9% 급등했다. 반면 에너지를 뺀 물가는 2.2%로 전월과 같았고, 식품·에너지·주류·담배를 뺀 근원물가는 2.4%로 오히려 0.1%포인트 내렸다. 즉 물가를 실제로 흔든 것은 에너지였고, 기저 물가는 오히려 잠잠했다.

다만 안심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근원물가 안에서도 가공품 가격(에너지·식품 제외 공산품)이 전년 대비 0.9%에서 1.2%로, 전월 대비로는 0.6%나 올라 코어 물가 상승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물가를 눌러주던 공산품 가격 하락 흐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3%에서 3.0%로 내렸지만, 이는 작년 8 월 서비스 물가가 유난히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일 뿐이고 이번 달 전월 대비로는 여전히 소폭 플러스였다. 서비스 물가 수준 자체는 1 년째 3%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정책적 의미

이번 물가 발표는 유럽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매파적(물가 경계) 기조를 유지할 근거를 강화한다. 목표치를 웃도는 정도가 커졌고, 국가별로도 리투아니아·스페인·벨기에 등에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가 이번 달엔 오히려 방향이 아래였던 만큼, 이번 자료가 추가 금리 인상의 근거까지 새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물가 상승의 성격이 광범위한 물가 재점화라기보다 에너지라는 특정 부문에서 온 공급충격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은 인상보다는 데이터를 지켜보는 관망 쪽에 무게가 실린다. 앞으로 볼 포인트

9월 17일 발표될 확정치에서 품목별 기여도가 이번 추정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되돌려지는지 여부가 다음 판단의 분기점이다. 또한 공산품 가격 상승이 8월 일시적 요인(여름 세일 종료 등)인지, 9월에도 이어지는 추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에너지飆 충격이 되돌려지지 않고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운송비·서비스 원가를 통한 2차 파급 가능성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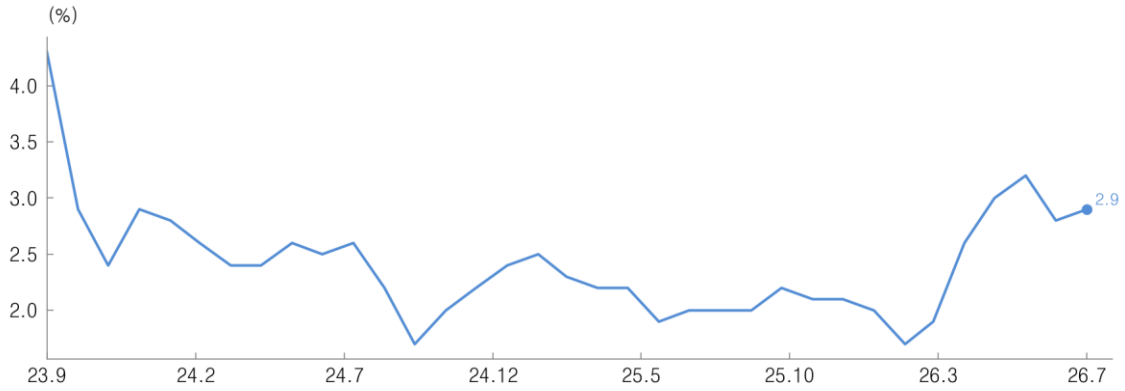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1 (이번)	8 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HICP)는 전년동월대비 3.3%로 7 월 2.9%에서 뚜렷하게 올라 2026 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속의 진원은 에너지이며, 코어물가와 서비스물가는 오히려 소폭 낮아져 유럽중앙은행(ECB)의 매파적 동결 기조를 다시 한 번 뒷받침하는 결과다.
2026-08-19	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지수 (HICP) 확정치가 발표됐다. 헤드라인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전월 2.8%에서 소폭 올랐고, 코어[에너지·식품 제외] 물가는 2.4%에서 2.5%로, 서비스 물가는 3.2%에서 3.3%로 각각 상승했다. 세 지표가 나란히 목표치 2%를 웃도는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번 확정치는 지난 7 월 말 발표된 속보치(플래시
2026-07-31	유로존 7 월 소비자물가 속보치(HICP)는 헤드라인이 2.8%에서 2.9%로,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가 2.4%에서 2.5%로, 서비스물가가 3.2%에서 3.3%로 나란히 소폭 올랐다. 다만 이번 상승분이 지난해 낮았던 기저 때문에 부풀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달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것인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다. 8 월 19 일 나올 확정치와
2026-07-17	에너지 기저효과 개선으로 유로존 인플레이가 3.2%에서 2.8%로 0.4pp 하락했으나, 서비스 인플레이는 3.2%로 고착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기저효과 순풍은 일시적이고 구조적 임금 압력·수요 강도는 불변임을 시사한다.

8 월 유로존 HICP 부문별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잠정치)

지표	7 월	8 월(잠정)	변화	맥락
헤드라인 HICP	2.9%	3.3%	+0.4%p	전월비 +0.4%, 올해 최고 수준
에너지	10.3%	14.3%	+4.0%p	전월비 +2.9%, 헤드라인 가속 주도
서비스	3.3%	3.0%	-0.3%p	전월비는 +0.1%, 1 년째 3%대 유지
근원물가(에너지·식품·주류·담배 제외)	2.5%	2.4%	-0.1%p	전월비 +0.2%
비에너지 공산품	0.9%	1.2%	+0.3%p	전월비 +0.6%, 근원 상승분 대부분 차지
에너지 제외 전체	2.2%	2.2%	보합	전월비 +0.2%
가공식품·주류·담배	0.7%	0.6%	-0.1%p	전월비 0.0%
비가공식품	2.4%	2.7%	+0.3%p	전월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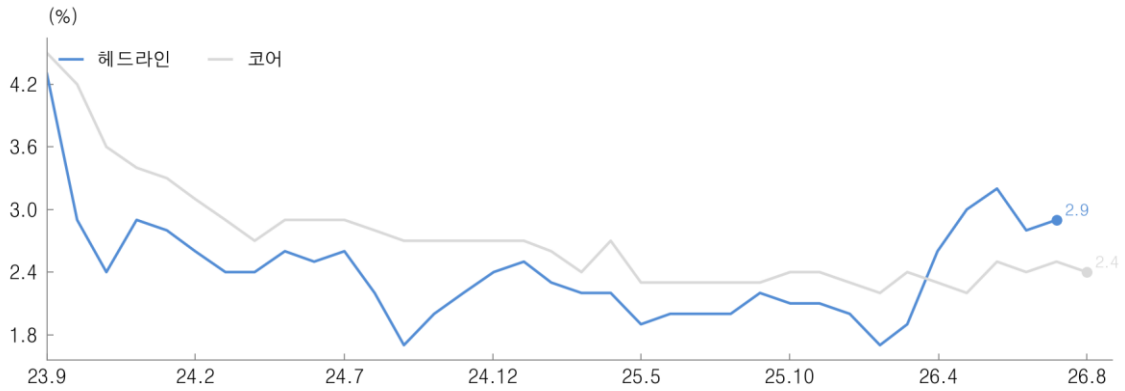
핵심 수치	
지표	값
HICP 전년대비(%)	3.3

유로존 HICP 상승률(전년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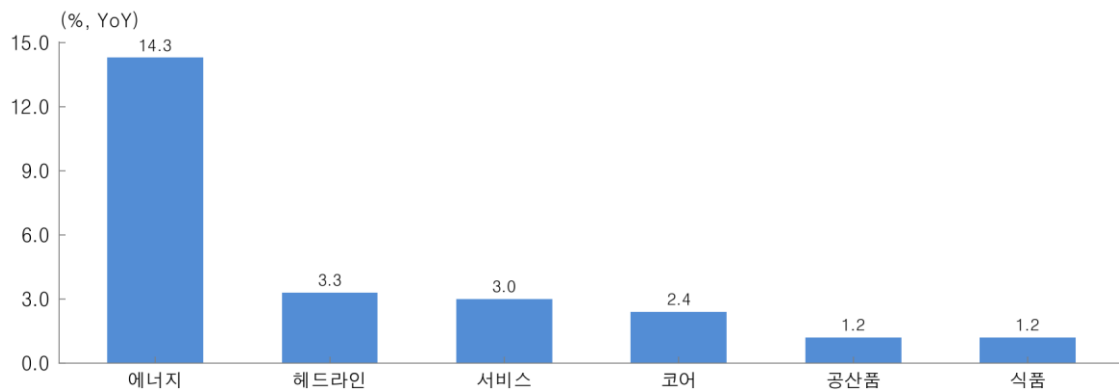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HICP — 헤드라인 vs 코어(전년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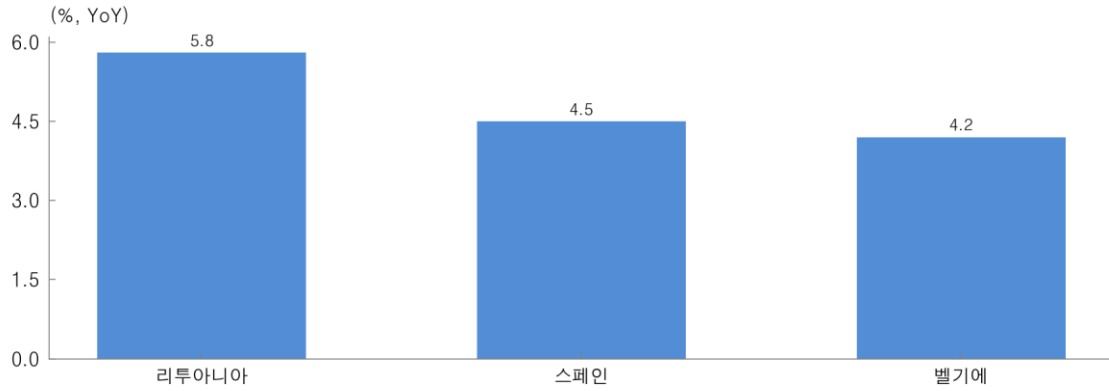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HICP 부문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2026 년 8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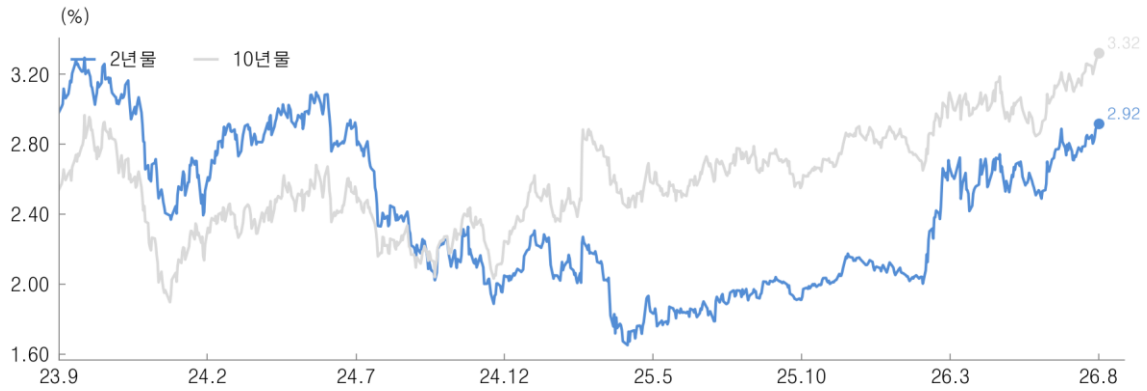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국가별 HICP 상방 분산(2026년 8월,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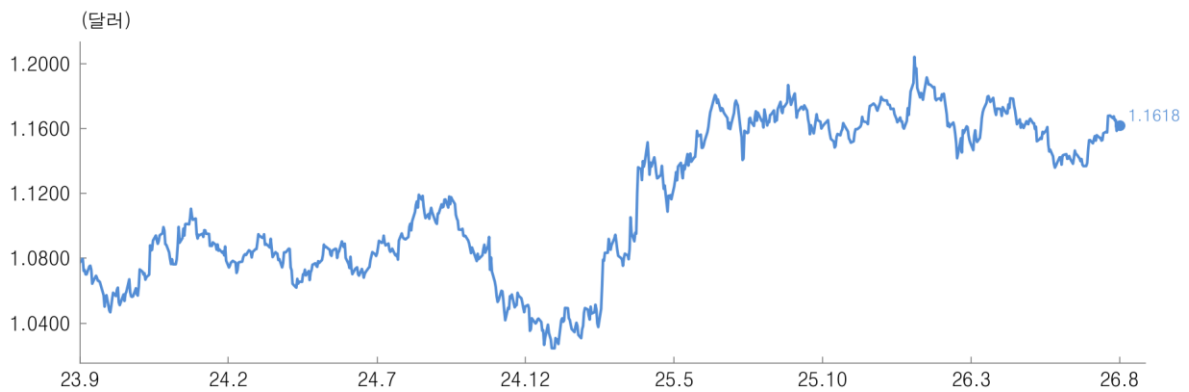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달러 환율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